

일본 농림성 업무용 야채 지원 확충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도부터 가공·업무용 야채의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작황 안정을 위해 토양 개량 및 병해충 방제 자재 등을 도입하는 JA(농협)와 생산부회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스위트 콘과 가지풋콩을 추가하여 9품목으로 확대하게 된다.

가공·업무용 야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수요자가 원하는 안정 공급이 가능한 산지를 늘림으로서 수입산의 점유율을 탈환할 예정이다.

■ 지원 확대 배경

- 식품에 대한 안전·안심을 요구하는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으로서 가공·업무용 야채 분야도 일본산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 다만, 일본산은 기상 이변이나 연작 장애로 작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공급량이 안정적인 수입산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 농림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통되는 가공·업무용 야채의 `10년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15년 사이에 20%나 감소했다.

■ “가공·업무용 야채 생산기반 강화 사업”

- 일본산 야채류의 소비확대를 위해 농림성은 안정적인 생산 대책으로 `13년도부터 “가공·업무용 야채 생산 기반 강화 사업”에 착수했다.

- 현재까지는 양배추, 양파, 당근, 파, 시금치, 호박, 상추 등 7개 지정 품목이 대상이며 소매용에서 가공·업무용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JA와 생산 부회, 농업법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붙임 참조)
- `16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야채 산지 만들기 지원 사업” 내에 10억 8,000 만엔 (`15년도:8억엔)을 계상하고 신규 품목으로 스위트 콘과 가지풋콩을 추가하였다.
- 수입산 스위트 콘은 미국산, 가지풋콩은 중국산과 대만산이 많으나, 외식업체에서 샐러드와 수프의 재료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산이 늘어나면 점유율을 탈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사업 지원 내용

- 일본산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하의 평준화가 필수적이므로 토양 개량 및 멀티 피복, 병해충 방제 자재 도입 등 작황 안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3년간 지원하게 된다.
- 노지작물로 10ha 이상 재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차는 7만엔(10a당), 2년차는 5만엔, 3년차는 3만엔을 지불하여 안정공급 체제정비를 목표
- 농림성은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에서 `25년도의 야채 생산량을 1,395만톤으로 현재보다 200만톤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 단순히 증산 분을 시장에 출하하면 시세가 무너지나 가공·업무용 수요를 늘림으로서 생산과 판매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처:일본농업신문 03.16)

■ 시사점

- 일본에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이 파프리카 이외는 대부분 일본에서는 외식 등 업무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인해 한국산 농산물의 일본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 그러나 일본의 농가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단 3년간의 지원으로는 작황 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원을 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업체에서도 일본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사용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됨
- 향후 한국산 야채류의 일본 업무용 시장을 더욱 수출확대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급과 눈에 보이는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가공·업무용 야채 생산기반 강화 사업

〔 2015년도 개산예산 결정액: 800 (1,000) 백만엔
2014년도 보정예산: 1,200만엔 〕

사업개요

【지원내용】 가공·업무용 야채로 재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작황 안정기술을 도입시 해당 비용 상당액의 일부를 면적에 따라 일정액 지급

토양·토층 개량 실시, 멀티 자재등 사용, 방해충 방제 자재 도입 등

【대상산지】 가공·업무용 대응을 위해 생산/유통 구조 개혁을 도모하는 산지

【대상품목】 양상추, 양파, 당근, 파, 시금치, 호박(※), 양상추(※)
(※) `14년 보정예산(`15년 2월)부터 추가

가공·업무용 전용 단지 설정, 실수요자와의 사전 계약, 가공용 품종 도입, 기계화 일관 체계에 따른 비용 삭감 등

【산지의 수익 개선 이미지 (예: 양파)】

단위 (만엔/10a)	판매수입①	비용②	수익①-②	기타
신선양파	40	34	6	
<종래>가공 양파	28	27	1	조제·선별 작업 없음

↓ 작황 안정 기술 및 전용 기계 도입

(구조개혁3년후) 가공 양파	34	24	10	단수 20% UP 비용 10% 삭감
--------------------	----	----	----	------------------------

구체적인 이미지

양파 (홋카이도)의 경우

【산지의 과제】

- 최근의 기상 이변으로 가공 양파를 안정 공급하지 못하고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 급증.
- 수입품의 점유율 탈환을 위해 이상기후 하에서 작황 안정과 산지의 구조 개혁이 시급한 과제

【산지의 대응】

- 작황 안정을 위한 기술을 조속히 도입 단수 향상을 도모

1년차:
7만엔 /10a



토층 개량



보수력 대책



지력 증진 작물

2년차:
5만엔 /10a



토양 소독



토양개량자재

3년차:
3만엔 /10a



토양개량자재

가공 업무용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야채 (예: 양파) 와 관련 일본산 점유율 회복 도모 및 국산 야채 이용확대를 위한 지원